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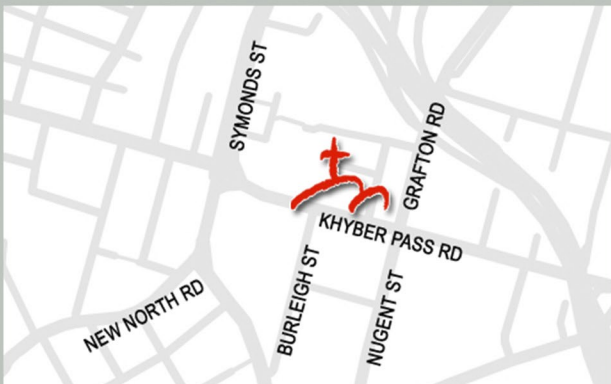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교회 창립 20주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몇 가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말씀 사경회
일시: 2019년 7월 19-21일 (금, 토, 주) 시간: 저녁 7시 30분 (21일은 오후 1시)
강사: 이은성 목사 (서울 산들 교회 담임, 코스타 강사)
 - 2) 추억의 사진전이 있습니다. (과거 사진, 현재 사진)
 - 3) 선행 인물을 추천받아 선행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주일까지 추천 바랍니다. (내용, 대상, 일시 등을 기록)
3. 주보 3면 공동체 나눔 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도 외우는데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4.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7월 7일(주일)~7월 9일(화) 장소: 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주제 : ACTS29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
5.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6. 입을 수는 있지만 입지 않고 있는 겉옷 두꺼운 잠바, 스웨터, 겨울용 파카가 좀 필요합니다. 로투로아에 바누아투 사람 300명 (남녀7:3) 정도가 일을 하러 왔는데 겨울옷이 없습니다. (가능한 치수가 큰 것, 16일 주일까지, 담당: 장연식 집사)

[6월 교회 사역]

6월 26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6월 30일 (주일) 성찬 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6/09
21권 23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요한복음 15:26-27 인도자
찬송	9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91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14:16-27 인도자
찬양대찬양	은혜의 단비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태한 목사
찬송	182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8시 15분
기도	최희숙 집사	금주기도	조주찬 형제
성경봉독	마태복음 26:47-54	다음주일	황보준호 형제
설교	[검은 검으로] 이태한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7월 7~9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찬송	191장		
주기도	다같이		

[6월 기도 순서]

6월 12일 (수) / 한누리 집사
6월 16일 (주일) / 박덕철 장로
6월 19일 (수) / 선교회
6월 23일 (주일) / 손조훈 집사

[6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손조훈, 고미현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MISSION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항상 기도해주시는 갈보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5월의 선교 소식을 나눕니다.

어머니 주일에 ‘따다 시드니’가 어머니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격려하였고 교회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 집사님들이 신앙의 진보를 보이며 수요 예배와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에 돌아가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브 목사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이규현 선교사 부부가 회갑기념으로 방문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테이블 마운틴을 올라갔습니다. 열악한 이디오피아 내륙에서 십여 년을 사역하시며 바다 구경을 못하였는데 모처럼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시며 감탄을 연발하셨고 근사한 찻집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내려와 보니 짐칸에 가방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많이 분실하였지만 그래도 여권과 지갑은 소지하였기에 억지로 위안을 삼으려 해도 왜 그렇게 기분이 쓸쓸하던지요? 그럼에도 주일에 참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4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5월은 아내가 한국에 검진받으러 나갔기에 혼자 있는 것이 한동안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성도들이 성금을 모아 선교사를 감동시켰고 눈 수술하기 바로 전 날 하루 금식하며 저녁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덕분에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6월 20일 경에 나 돌아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는 보내주시는 응원과 후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2019년 5월 3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선교사

기도 제목

1. 선교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도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2. 아내가 잘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게 사역하도록.

PRAYER

1. 말씀에 기초하여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2. 사경회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하도록.
3.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SHARING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입니다.

뉴질랜드에 온 지 어느덧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림던 가족들도 모두 무사히 도착하면서 문득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소명 의식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새삼 두렵기만 했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복된 일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녹록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이곳 뉴질랜드의 새로운 삶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리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널 위해 준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익히 전해 들었던 터라 조금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갈보리교회는 오히려 정감이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갈보리 교회를 만난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사랑이 많으신 담임목사님, 순종적인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청년과 아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장차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열방과 뉴질랜드 부흥의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것처럼(행 2:47),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나누는 것처럼(행 4:32)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갈보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성훈 목사

금주의 암송말씀

요한복음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